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축사

한화갑 |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오늘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 해주신 오충일 대회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참여단체와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은 이념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가 확대되면 과거 이념적, 종교적, 지역적 갈등은 해소되고, 새로운 세계평화체제가 형성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끈임없이 인종과 종교 그리고 민족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오히려 민족과 민족주의를 재발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이스라엘, 이태리, 그리스, 인도와 같이 재외동포 수가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재외동포들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수는 매년 20만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개척자이자 민족의 자산입니다. 향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적극적 추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소극적이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정책수립이 시급합니다.

저는 지난 2004년부터 “사단법인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를 창설하여 총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재외동포 정책수룩집인 ‘한민족 지오그래피’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6대륙, 173개국 600여 만 명의 재외동포 거주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기초로 생동력있는 한민족 네트워크인 한넷(HANNET)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단 한명의 한민족까지도 하나의 끈으로 잇고자 합니다. 재외동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넷의 구축과 더불어 독도수호 문제 및 간도와 연해주 영유권 회복 문제 등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과 여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정부의 방관하에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외국의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고립적 외교에서 벗어나 협력적이고 실용적 외교를 지향해야 하며 그 밑바탕에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가집시다. 그리고 모국의 발전과 재외동포 여러분의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시작되는 이 대회가 3박4일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